# 나눔터

2022 하반기 VOL. 91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 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 • 친족성폭력 생존자 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 ◆ **뛴다!상담소** ◆ **상담통계**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년 상담통계 ◆ **열림터 다이어리** • 계획한 대로 안 해도 돼!! 부담 NO NO ◆ **생존자의 목소리** • 집단상담 후기: 화요일의 아홉 생존자들 ◆ **성문화읽기** • 어려우니까, 스터디합시다! : 열림터 온라인X청소년X섹슈얼리티 스터디 • 젠더폭력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의 부재,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는 우리의 정치적 책임 문제이다 •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 •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시리즈 집담회 로우(LAW)킥 뒤에 숨은 내심 ◆ **시끌시끌 상담소** • 산행하는 페미니스트들, 지리산에서의 한 걸음 • 상호돌봄의 디자인, 외주를 넘어 동등한 관계의 협업으로 •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 인사드립니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훈훈한 기부**

©정운 (jeongu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 산 타는 페미들이 나가신다!

서울 한복판, 고궁과 옛 도성 성벽을 두른 인왕산.

빨갛고 노란 단풍이 예쁘게 진 가을 무렵,

열한명의 페미니스트가 각자의 깃발과 함께 즐거운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회원놀이터 〈산 타는 페미들〉에서 했던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시기,

소소하고 즐거운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 나눔터

91

2022 하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김혜정
**펴낸날** 2023년 2월
**만든이** 한소망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 전화** 02-338-2890-1
**상담 전화** 02-338-5801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나눔터

91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9 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
15 친족성폭력 생존자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

20 **뛴다!상담소**

22 **상담통계**
22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년 상담통계

28 **열림터 다이어리**
28 계획한 대로 안 해도 돼!! 부담 NO NO

33 **생존자의 목소리**
33 집단상담 후기: 화요일의 아홉 생존자들

40 **성문화읽기**
40 어려우니까, 스터디합시다! : 열림터 온라인X청소년X섹슈얼리티 스터디
44 젠더폭력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의 부재,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는 우리의 정치적 책임 문제이다.
49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
54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시리즈 집담회 로우(LAW)킥 뒤에 숨은 내심

60 **시끌시끌 상담소**
60 산행하는 페미니스트들, 지리산에서의 한 걸음
66 상호돌봄의 디자인, 외주를 넘어 동등한 관계의 협업으로
70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 인사드립니다!

76 **아낌없이 주는 나무**

80 **훈훈한 기부**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동은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미투운동 이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가해자 안희정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고,*
*고은 역시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가 거센 반발을 맞았지요.*
*가해자는 속속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는데,*
*피해자가 돌아올 자리는 마련되어 있을까요?*
*피해자가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봅시다.*

## 다섯 여름,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다섯 번째 여름을 맞아 상담소는 미투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도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가해자 중심적이고 퇴행적인 담론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번의 선거를 지나며 미투운동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출소,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주기가 있었고, 다른 미투운동 가해자들의 법적 처벌 기간이 만료하는 복귀의 시점에서, 상담소는 과연 주변인과 공동체가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논의하고 싶은 쟁점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를 탄핵하는 양상이 더욱 격렬해졌고, 성폭력을 부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2차피해 개념과 같은 반성폭력의 용어들이 이전보다 대중화되었지만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고민을 나눠 보아야할 필요 속에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내내 지지와 연대의 언어가 풍성하게 살아있었는데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부분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1]

---

1) 생생하고 힘 있는 논의가 더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 자료집 큐알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 일상을 거꾸로 세우기, 다른 지금을 살아가기

미투운동의 잘 알려진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에서 일상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미처 담지 못하는 피해자의 싸움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은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일상이 없다"라며 이는 "미투운동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기득권 위에 구조화된 것이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기득권이 가해 구조의 핵심이고 부당한 권력사용에 대해서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며 맞서는 것이 피해자의 싸움이라면, 폭력의 구조 속에 조직되어 있었던 일상을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과제가 피해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충북스쿨미투연대의 주연님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지금을 살자"라는 선택을 하기까지의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가해자만 쏙 빠진" 일상을 바라왔지만 폭력의 구조를 알아버린 나의 관계와 생활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가 상담소의 다른 토론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말하기, 피해자의 말하기는 차별의 구조 때문에 온 세계를 거꾸로 세워야 하는 일"이고, 이 작업을 '아무도 이와 같은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주변인, 동료들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2] 주연님도 스쿨미투지지모임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그 시간을 버텨내며 새로운 일상을 짓는 과제를 해나가고 계셨고, 장혜영 의원님의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확장"도 공동체가 함께 발명하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2)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열기 :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_사회운동만들기, 연대하기 (2021.7.1)

### ‘공동체’ 구체적으로 사유하기

피해자가 일상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면, 책임 있는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연극계 내 반성폭력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이산님은 공동체란 무엇인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해관계망으로서 공동체를 전제하며 성폭력 사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자원을 여러 요인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해왔고, 서열에 포함되기 위해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착취해온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경험이 없다면 공동체의 이익 추구는 차별과 폭력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체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이해관계의 울타리를 넘기 어렵고, 가해자는 공동체와 분리되었던 시간을 권력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관계망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세심하고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성을 나눠주었습니다. 연루된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의도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보다 피해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때, 부채감이나 자책감으로 위축되기보다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주변인의 구체적 역할들이 더욱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금속노조 부위원장 권수정님의 말 속에서도 이어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는 결국 “네가 하는 말이 맞아” 하는 것이 말 또는 행동으로 집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 표현의 방식을 어떻게 매뉴얼 등을 통해 교육하고 알려나갈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미투운동 중간결산'

올해 상담소가 미투운동 중간결산의 자리를 연다고 들었을 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던 것 같아요. 미투운동 당시 학생으로서 뉴스 등을 통해 미투운동의 개별 사건들을 접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커다란 무게를 가진 이야기가 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장면에 기대되는 한편 중요한 싸움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피해생존자와 지원자들이 얼마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화와 제도 등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획팀 활동을 하면서 '미투운동가'로서 그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질문들을 확인하면서 연루된 주변인들의 역할, 일상을 새롭게 짓는 피해자의 여정에 함께하는 방법 등 미투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고민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회원분들에게도 미투운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떠올려보고, 미투운동의 무게를 소화하고, 어떤 말을 보태어 보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시간 -미투운동 중간결산-이 마련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미투운동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드러내려고 했던 기획팀으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 같아요 :)

자료집 보러가기 ▶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시민의 개인정보 다루는 '희망이음' 시스템의 문제점

# 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시작하자마자 시스템 먹통으로 비판받았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한 사람의 지원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명목 아래*
*정보의 과집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가 바라본 '희망이음',*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희망이음'을 알게 된 것은 2022년 6월이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운동단체들은 2009년 행정안전부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검토를 요구하며 수년간 활동한 바 있다. 여성폭력 쉼터 입소자의 경우 입소해있는 동안 생계비 등이 사회보장급여로 지원되는데, '국가전산망'을 거쳐 신청하고 지급받는다는 것은 고유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승인받는 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운동단체들은 '전자정부화대응모임'을 꾸리고 의무사용에 반대해왔다. 그러던 2012년 3월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사용을 의무화했고, 단

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쉼터 생활인 개인정보는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 시군구와 다른 경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이끌어내 현실화해 왔다.

그런데 희망이음은 무엇인가? 2012년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여성폭력피해자쉼터는 내담자 고유정보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아왔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더 큰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희망이음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가 부여한 이름이다.

2022년 4월에 발행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설명자료〉에 따르면 희망이음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입양정보시스템, 국가아동학대, 가정위탁지원, 아동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 노인학대,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발달장애인지원정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자활정보시스템

등 기존 30개가 넘는 정보시스템들의 통합망이다.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이 사업자이고, 2020년 4월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윈도우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전개편하는 것이라는 손쉬운 설명이 있었지만, 사복시와 희망이음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매머드급 '전산망 통합'이며, 그의 명분이자 목표는 대상자 개인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력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고 서비스의 중복·누락 등 발생 가능성'이 구축배경 중 하나로 쓰여 있다.

개발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알지 못했고 의견수렴 한번이 없었는데, 당장 3개월 후 2022년 9월 1일부터 기존 시스템 '사복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 '희망이음'으로 업무를 하라는 통보가 6월 경 사복시 공지에 올라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등 회의에서 이 소식을 공유하며, 시스템 설명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시범운영 기간 모니터링을 하며 검토를 시작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검토 결과의 우려점들을 담아 6월 23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인적사항 기재 문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필수 입력으로 되어 있다(29쪽). 희망이음 구축배경을 보면 사회서비스 대상자(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서비스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용자 정보관리'가 핵심

이며 고유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 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다.

**2. 과도한 정보집적**

30개가 넘는 사회서비스 망을 통합하고 '개인맞춤형'이라고 삼다보니 한 개인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이 된다. '기본인적사항' 인터페이스를 보면 가족유무, 의료급여전산번호, 실명확인여부, 이메일, 종합장애정도, 건강상태, 주장애유형, 건강상태 상세, 세대유형, 가족현황, 은행명, 계좌번호, 학교명, 학년, 반, 담임연락처,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자격 및 이용정보, 가구혈연, 장애및건강정보, 특이사항 작성 메뉴가 이어져 있다.

**3. 이전 이력 조회시스템**

희망이음 주력 새 기능으로 '원스크린'을 내세우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전에 이용했던 복지서비스의 상담이력이 원치 않게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성폭력보호시설의 이용 사실이 전혀 무관한 다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필수사항은 기관 간 연계할 경우 다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무관한 이력까지 다 제공된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4. 현장기관 협의없음**

시스템을 개발해온 보건복지부는 30개가 넘는 전산망을 통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만큼의 각 시스템의 특성, 유의할 사항, 역사 등을 세심히 알고 점검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폭력 분야만 해도 현장기관 의견수렴 한번도 없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와도 희망이음 구축 과정에서 협의가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본 상담소 의견서를 발제삼아, 여러 여성폭력피해자지원 단체

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기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를 전달하여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9일, '기존 사복시에서 사용하던 대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여성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희망이음 시스템대로의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기존처럼 별도의 과정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부터 이용하도록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었다. '원스크린'이라는 사회서비스 기존 이용내역 조회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인지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영역별로 외부로부터 지원 연계를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조사했는데 외부와 성폭력피해자 지원 '연계'를 하는 것과 원스크린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의 질문이 혼용되어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 연대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면담을 요청하라'고 회신하자 보건복지부 차세대정보시스템 추진단과 2022년 8월 29일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원스크린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수혜이력'은 타 기관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했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정보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쉼터는 아예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긴급전화센터는 공개하되, 성매매 자활지원센터는 전화번호 공개, 개별센터명과 주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9월 1일 희망이음 개통 직전의 면담이었고, 최소한의 상황을 '막는' 방식이었지만 아주 답답하고 허탈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율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미 애초부터 꼼꼼히 협업하여 실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앞 의견서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인적사항 기재 문제와 세 번째 수혜이력 타

기관 온라인상 제공 문제는 긴급한 상황을 일단 막았지만, 가장 깊은 문제 의식인 과도한 정보집적은 이제 시작이다. 국가와 정부는 30개가 넘는 사회보장의 상황을 노인학대, 돌봄, 응급안전, 아동학대 등 영역별로 두고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서 사회보장 '수혜자'라고 이름붙이는 쉬운 길을 열었다.

중복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제까지도 법에 의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자격조회'를 해왔다. 사각지대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에 수십만 수백만명의 종교와 형제자매 같은 상세 개인정보를 다 집적해놓는다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인가? 질문한다. 도리어 사회보장 참여 시민들의 '양적 정보'는 또 다른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상' 사용되고 응용되는 것은 아닌가? 희망이음이 만들어지고 많은 정보를 집적하는 방식이 시작되기까지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

이제부터 모여갈 정보는 어떠한가? 제대로 보호하고, 제때 파기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는가? 보건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생명과 삶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과연 맞춤형 사회보장의 장을 열지, 선별하고 또 선별하는 새로운 위험한 기술을 탄생시킬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한다.

# 친족성폭력 생존자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

행복 | 공폐단단 활동가

*여기, 직접 목소리 내기를 선택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친족성폭력생존자들이 모여 만드는 축제의 장,*
*생존자랑대회의 A부터 Z까지 모두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작년 11월을 기억한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했던 제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축제에 사용할 가면을 함께 만들고, 축제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나가면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광화문에 모여서 1인 시위를 하며 얼굴을 익혔던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는 마음으로 벅차올랐다. 이 소중한 기억은 지난 1년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떠오르면서 나에게 힘을 주었고, 올해의 축제를 또다시 기다리게 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렸는데 아뿔싸, 축제 기획을 앞두고 나는 일과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에 기획회의 카톡방을 빠져나왔지만 작년, 제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를 함께 하자고 처음 손을 내밀었던 푸른나비님이

올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부담가지지 않고, 이번에도 즐겁게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래, 1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축제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는 다시 살아 돌아온 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을 버텨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생존을 '자랑'할 수 있는 장이자 '생존자랑' 연대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기획 회의, 집회 장소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많은 인원이 생존자랑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을 생존자랑대회의 시작장소로 선정하고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반려한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서울시로 인하여 장소를 보신각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기획단은 생존자랑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퍼포먼스와 행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집회의 아이돌 이랑님을 공연에 섭외하고, 연대 단체의 네트워크를 늘려나갔다. 집회 전에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모여 참여자들이 사용할 가면을 꾸미는 일은 올해도 즐거웠다.

단막극 퍼포먼스는 푸른나비님의 의견이었고, 하윤님과 내가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따로 단톡방과 화상회의를 열어가며 퍼포먼스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퍼포먼스에는 폭력과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두 발로 세상을 버티고,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며,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지지와 연대의 말들로 내면의 더 강한 힘을 발견하는, 마침내 우리는 모두 함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 퍼포먼스 안에 폭력과 생존과 연대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계속 오고 갔다. 그 과정에서 내레이션을 해줄 집회장인 앎님을 퍼포먼스 팀에 섭외했다.

폭력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까? 물감이 담긴 물풍선? 다트 던지기? 끈 묶기? 위험하고 트라우마가 남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물건도 각자 달랐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했다.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만 안전한 것을 선택해야 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빨간 두꺼운 끈이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생존자랑대회가 열리는 날이 기다려졌다.

2022년 10월 29일, 드디어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생존기념축제-생존자랑대회가 열렸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와 맑은 하늘을 보며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설레었다.

도착한 보신각에는 우리 이전에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부는 연대와 응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고, 누군가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고, 몇몇은 2차 가해가 섞인 말과 질문을 하기도 했다. 뭐가 저리도 궁금할까. 언제쯤 이런 시선과 무례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지님과 지안님. 일명 민지안 듀오의 유쾌한 사회로 생존자랑대회가 시작되었다. 영서님의 환영의 말과 생존자와 연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단막극 퍼포먼스에서는 2차 가해의 언어들이 나열되는 동안 생존자역의 퍼포먼서들은 끈이 묶여진 채로 온 몸으로 괴로움을 표현했다. 관객들이 지지와 연대의 말을 시작하자, 퍼포먼서들은 자신의 힘으로 몸을 옭아매고 있던 끈을 풀어내고, 서로를 마주보며 연대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해낸다.

그들은 관객 안으로 들어온다. 아무도 그들과 관객을 구분할 수 없다. 연대의 마음으로 서로를 연결했다. 우리가 함께 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벅차올랐다.

혼자 느낀 벅참이 아니었으리라. 서로가 연결된 순간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행진을 시작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일상의 폭력이다.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가해자의 범죄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행진 구호가 거리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참여자들은 도돌이표처럼 함께 행진구호를 이어나갔다. 광화문 근처의 주말 거리를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진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외친 구호를 들었다. 삼청동 거리에서는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다. 옆에서 함께 걷고 있던 참여자가 유쾌하게 말을 걸어왔다. "정말 집회하기 좋은 날 아니에요?"

행진 중간에 개인적인 위기가 한번 찾아왔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같이 참여한 활동가가 확성기를 대신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서로 돕고, 함께 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든든한 마음으로 확성기를 맡기고 걸어가는 동안 다행히 몸도 회복되었다.

생존자랑대회를 시작했던 보신각에 다시 모여, 마무리집회를 열었다.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자유발언이 다시 이어졌고, 이랑님이 연대공연을 해주셨다. '생존자가 나타났다!' 모두 노래에 맞춰 신나고 힘차게 외치며 마지막까지 함께 즐겼다. 내년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가 열릴 때까지 나는 이 기억으로 또다시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폭력'으로 변경되었다. 성평등을 위해 힘써왔던 그간의 노력들이 지워진 기분이었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을 강화하고, 여성폭력을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울분에 휩싸인, 살아있고 강렬한 눈빛들이 그려졌다. "우리를 지우려고 해? 우린 다시는 죽지 않아" 외치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존재하는 폭력과 피해를 지우려 들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회복되기 어렵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부장제 구조 안에서 버티며 지금껏 살아냈다. 우리는 생존자이며 연대자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피해와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분노하고, 함께 아파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이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보듬으며 울고 웃어야 한다. 내년에도 죽음에서 돌아온 우리들이 생존을 자랑하고, 함께 하기 위한 축제가 꼭 열리길 소망한다.

다른 참여자 후기 보러가기 ▶

**7월**
**7/5**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
**7/12** 경찰에 의한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규탄 기자회견
**7/16** 서울퀴어문화축제

**8월**
**8/13** 10대를 위한 적극적합의 놀이터
**8/16** '젠더갈라치기'라는 새로운 함구령을 넘어 젠더폭력 저항하고 애도하기
**8/17**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출범
**8/20**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8/24~8/26** 상근활동가 워크숍 in 제주

**9월**
**9/1**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9/2**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자회견
**9/3** 친밀한 관계를 위한 적극적 합의 건강검진
**9/15**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긴급포스트잇 액션
**9/17** 남성을 위한 적극적 합의 보드게임 카페
**9/22**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추모집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9/24** 기후정의행동선언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행진하자〉
**9/28** 모임넷 보건복지부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7/16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8/20

ⓒ정은

8/24~26

9/22

**10월** **10/1** 성폭력피해자조력인 자조모임
**10/15** 여성가족부 폐지 규탄 전국 집중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10/29**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생존자랑축제

**11월** **11/8**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1/17**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11/19** 회원놀이터 〈산 타는 페미들〉
**11/25** 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 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성평등을 강화하라! 기자회견

**12월** **12/1** 2022 한해보내기
**12/13~12/14** 서울대 음대 C교수 성폭력사건 국민참여재판
**12/27**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 〈지워도 지워도 절대 절대 안 지워지지〉
**12/28**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규탄 기자회견

뛴다 상담소

10/15

10/29

11/17

12/1

12/27

# 한국성폭력상담소
# 2022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9,351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2년 전체상담은 1,387회(537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10회(478건)로 전체상담명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0%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입니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초기상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좀 더 쉽게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단위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단위 '건수'는 '명수'로 변경했고, 산정 값은 초기상담명수(초기상담명수+지속상담명수)로 괄호에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괄호 값의 경우 기존의 산정 값이 없으므로 최근 3년 산정 값을 기재했습니다. 중복되는 지속 상담을 포함한 단위 '횟수'의 경우 '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 건(%)

| 연도 | 상담회수 | 상담건수(A) | 성폭력상담건수(B) | 성폭력상담비율(B/A) |
|---|---|---|---|---|
| (1991년~2019년 상담 통계 중략) | | | | |
| 2020 | 1,324 | 779(844) | 715(780) | 91.8 |
| 2021 | 1,415 | 595(701) | 537(639) | 90.3 |
| 2022 | 1,387 | 537(622) | 478(562) | 89.0 |
| 총 | 89,351 | 58,746 | **49,570** | 85.6 |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478명 중 434명(90.8%)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2% 중 남성 피해자는 6.9%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피해자로, 총 306명(64.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의 비율이 2021년 61.3%에서 64.0%로 약간 늘었고 여성 청소년(2021년 13.0% → 2022년 8.2%)과 여성 어린이(2021년 9.7% → 2021년 9.2%)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478명 중 409명(85.6%)을 차지하였습

니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20명(6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7.9%(38명)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명수는 478명 중 332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명수는 140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여 당사자(2021년 65.9% → 2022년 69.5%)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대리인(2021년 32.6% → 2022년 29.3%)로 감소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명수가 76명(1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간이 178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제추행 피해 상담 역시 176명(36.8%)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9년 31.3%, 2020년 34.4.%, 2021년 35.9%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46명(9.6%)이 뒤를 이었

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과 어린이(13세-8세)의 경우는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중 성인 가해자(20세 이상) 비중 72.6%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47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0명(6.3%),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9%), 어린이(13세-18세) 7명(1.5%)입니다.

###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82.0%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92명(82.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5명(22%)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35명(7.3%)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1명(2.3%)으로 가장 높았고, 친족 및 인척 관계에 의한 피해가 8명(1.7%)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피해 총 58명 중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28명(48.3%), 11명(19.0%)로 약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

준히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13.0%로 예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 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8명(12.1%)으로 예년 45명(8.4%)에 비해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른 관계 유형 중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로 보입니다.[1]

### 8. 피해자 지원내용

본 상담소가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310건)를 기준으로 중복집계 하였습니다.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65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25건(47.7%)로 많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심리정서적지원(48.1%), 법적지원(35.5%) 순으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2022년 상담일지 개편으로 인한 지원내용 분류 방법의 변화와 관련됩니다.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와 피해자 지원 요청 내용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 상담일지 양식수정 및 지원내용의 분류 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원내용으로는 '정보제공 및 상담원의 의견개진'(이하 정보제공), '공론화 지원', '사례회의' 등입니다. 정보제공의 경우, 기존에는 간단한 법적절차 안내, 유관기관 및 쉼터 전화번호 안내 등 단순 정보제공도 각각 법률지원과 기관연계지원으로 분류해왔으나, 2022년부터 정보제공

---

1) 기본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산정 값으로, 해당 값을 별도로 산정한 결과 관계 미상 58명 중 21명(36.2%)이 대리인 상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리·정서지원으로 분류했던 상담원 의견이나 단순정보 전달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실제 지원 방법에서도 비율이 늘고 있는 공론화 지원도 별도로 분류하게 되었고, 지원내용에서 누락되기 쉬웠던 사례회의 등을 통한 지원 방식도 추가하여 다양화된 지원 내용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냅니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입니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 관련 상담 등을 나타냅니다.

# 계획한 대로 안 해도 돼!!
# 부담 NO NO

**연화**

**〈열림터 다이어리〉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싣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 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관점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소와 열림터에서는 쉼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또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 또우리폴짝기금은 열림터를 퇴소해서 자립한/자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금이에요. 폴짝기금을 통해 열림터 또우리들이 '폴짝!' 뛰어볼 힘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N년 전 퇴소한 연화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또우리 폴짝기금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 드리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시지 않을 저의 과거 이야기까지 보게 되실 점 양해 드립니다ㅠㅠ. 폴짝기금 총 2회 신청한 것 대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폴짝기금

당시 저는 여러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 등 사정으로 인해 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구하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했어) 보이스피싱 나쁜 녀석들이 내 통장을 이용한 거라 전화

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제 통장으로 돈을 막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에 은행 가서 물어보니 벌써 입금한 사람들 중에 신고한 사람이 있어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막 오기 시작했고, 가까운 지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조사받고, 이후 정지로 인해 남아 있던 돈을 신고 한 사람들에게 환급해준 후 막막하고 힘든 상황일 때 폴짝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획서에 "핸드폰 미납 요금, 강아지 병원, 강아지 미용 등" 으로 사용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ㅎㅎ 그렇게 6월 1일이 되고 폴짝기금이 입금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랑스럽게 결제하려고 하니 "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라는 멘트가 확인되어 급하게 은행으로 가보니 모두 끝난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추가 신고가 들어와 "사용 금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신고했던 분들이 아닌 당시 내 통장으로 입금 한 사람 중 신고를 못 한 분들이 추가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폴짝기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또다시 정지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은희 선생님께 연락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환급 대상 금액일 경우 환급하면 안 되는 지원금이라는 증명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은행에서 환급 불가로 접수해 주셨고 몇 개월 후 아슬아슬하게 기간 내 정지가 풀려 남은 금액을 핸드폰 미납 요금 납부하고 해당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하하하하

하지만 최고 중요한걸 못했더라구요, 영수증 모으기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 가서 내역서 뽑아서 사용한 부분 체크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말씀하시길 사용한 내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도 간략하게 적어서 제

출해주면 더 좋을 거 같다고 하셔서 나중에 또다시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맘먹고 1차 폴짝기금 무사히 사용했습니다!

**알고 가기 – 나도 잘 알고 있지 않지만 한번 적어 봤습니다.**

폴짝기금은 1년? 2년 단위로 총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1] 그래서 저는 기간이 지난 지금 2022년도 되어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지루하시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꾸벅)

나의 왈) 그거 아세요? ㅠ 저 위에 내용 중 보이스 피싱? 이 2019년도 시작으로 해결은..2022년 초에 완전히 종결이 났습니다. 무려 1년 단위로 신고받아서… 결국 마지막엔 소송까지 받았지만ㅠ 다행이 은희쌤과 도경 변호사님 도움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짝짝)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폴짝기금**

저는 곧 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폴짝기금 공지를 받았고 두 번째 폴짝기금 신청 가능 대상으로 (럭키) 한 기분으로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폴짝 신청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가족 여행**으로 열심히 계획서를 최대한 작성을 했는데, 막상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간 맞추고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을 바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몸을 풀기 위해 사우나가서 마사지**

---

1) 만든이 주: 2023년 현재 2년 단위로 2번 신청 가능합니다.

**를 받고 세신 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줄은! 그 후 폴짝기금 계획서와 달리 결국 출근할 때 모닝커피, 점심, 등 위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목적인 사우나를 오게 됐는데, 입장료를 계산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세신 및 마사지 계산하려고 보니 카드가 안 되고, 현금영수증이 안 되지 뭡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니께서 세신만으로 현금결제를 해주셨습니다. 흐윽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저는 입장료만 납부하게 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결국 퇴사 전까지 모닝커피, 식후 커피, 점심, 저녁 막 시켜 먹고 사 먹게 됐습니다. 중간에 영화도 보고, 아파서 약국가서 약을 사 먹는 등으로 폴짝기금을 사용하게 됐지요. **그래도 첫 번째보단 나아진 게 있다면, 영수증을 그래도 조금은 모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었지만, 없는 건 내역이 있는 캡처본을 프린트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노트? 같은 걸 사서 영수증과 어디에 사용 한 건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영수증 또는 내역서 제출해도 가능해용~~)**

©연화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

폴짝기금 신청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로 계획서대로 하려는 부담이 있는 거 같아 알려 드리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일단 계획서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대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계획서엔 다른 내용을 적었지만, 꼭 적은 내용대로 안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부담 없이 신청하고 맘 편히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대로 안 해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은 한 건 맞으니까요. 아직은 최대 신청 횟수는 2번이지만 선생님들도 더 신청할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맘 편히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의견이나, 나보단 더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분들도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폴짝기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선생님들께 말씀하시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다 못해 사랑까지 하실 겁니다!** (훗)

아! 처음 계획한 여행을 요번에 가게 됐습니다. 최고로 가고 싶었던 일본 도쿄!!!! 크으! 폴짝기금 기간은 끝나서 개인사비로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폴짝기금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이 조금만 더 상승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헤헷

집단상담 후기

# 화요일의 **아홉 생존자들**

두부고양

**“설명할 수 없지만, 이야기를 말로 해보는 게 왠지 도움이 되더라”**

2021년, 오랜만에 아무일 없었던 듯 잘 지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며 빠르게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찰나의 틈새를 비집고 덮어놓았던 감정들이 불쑥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웃다 말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한계가 느껴지던 2022년 초여름, 인스타에서 평소 좋아하던 은유 작가님과의 글쓰기 수업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작정 신청서 적어내고, 뒤늦게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다보니 공지글은 무려 “1분 전 업로드”라고 되거더군요. (그저 조상님이 도왔다고 밖에…)

그렇게 저와 한국성폭력상담소와의 첫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치유적 글쓰기’ 수업은 마냥 쉬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고 낯선 감각이 압도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미처 언어화하지 못한 채, 엉키고 눌러붙은 슬픔과 혼란. 처음으로 작정하고 건드려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은유 작가님과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관계망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글이 자극이 되어 “더 안으로, 더 명료하게” 뻗어나가며 글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해도 될까?' /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 '어쩜 내 마음과 똑같을까?' / '나 혼자 저러는게 아니었구나.'

수업이 끝날 때즈음, 한 분이 '집단상담' 경험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로 털어놓은 경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요. 시간이 흘러 퇴사를 앞둔 가을, 한국성폭력상담소 인스타그램에서 '집단상담' 모집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반짝였습니다. '집단상담은 얼마나 해방감을 줄까… 6주도 좋았는데, 10주 과정은 어떨까…'

### 이 낯선 감정을 따라가보고 싶어

6주간 글쓰기모임 덕분에 처음 느낀 안정감, 동료애는 낯선 것이었고 저의 희망이자 북극성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011년의 피해사실을 오랜 시간 비밀로 하고 지냈습니다. 8년이 지나, 겨우 털어놓았을 때에는 조롱당하고 공격당해서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려다보니,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마음에 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피해 이후에 더더욱 필요한 온기/사랑/공감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1년만에 안전함과 연결감이라는 감각을 느꼈으니, 그 감정을 따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

'혹시 트리거로 더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지?' / '나에게도 도움이 되라는 보장이 있나? 시간 낭비는 아닐까? 지금 돈을 벌고 토대를 꾸리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란데. 나는 이미 많이 뒤쳐졌잖아…' / '내가 자주 멍해지는 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면 어쩌지?'

몇 주씩 계속 결정을 미루는데, 1자리인가 남았다는 공지가 뜨는게 아니겠어요? 못 이기는 척, 운명에 몸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다정한 약속, 화요일마다 서로에게 귀기울이기로 해**

지나고보니 집단상담의 전체적 분위기는,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라다'님의 헤어스타일과 꼭 닮았습니다. 자유롭고 풍성한 히피펌이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다정하지만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결을 닮았습니다. 그 마음이 10주 내내 모두를 감싸 안아준다고 느꼈습니다. 라다님과 활동가 감이님, 그리고 피해경험이 있는 7명은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특히 3주차부터 부쩍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보통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시작됩니다. 이때 마더피스 타로카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고 감정의 경계를 내리는 데에 아주 탁월한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다님의 가이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말하는 당사자는 막상 무덤덤한 표정일 때도 있습니다. 자책과 불안, 두려움이 뒤섞여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보면… '우리'는 어쩐지 혼자일 때보다, 더 현명해지고 더 명료해지고 무엇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미처 분노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대신 분노했습니다. 넓은 홀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안타까워서, 기가 막혀서. 눈시울이 시뻘개지고, 척추부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법제도, 비겁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의 만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새끼와 그 새끼를 두둔하는 년들과 놈들…!!

마음 속에서 맴돌던 이야기에 비로소 소리가 붙고, 나보다 나를 더 믿고

들어주는 귀들이 기다려줍니다. 서로 귀기울이는 만큼. 우리의 상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귀기울이는 만큼, 우리의 상처는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해진 상처가 더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진실에 귀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의 미쳐도는 고통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선명해진 상처만큼, 딱 그만큼씩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남자 인생을 망치려는 꽃뱀? 아니고 생존자.
남탓만 하는 피해자 콘프레? 아니고 생존자.
예민해서 유난떠는 거? 아니고 생존자.
화요일에 태어난 아홉 생존자들.

**어쩌면 치유란 SF를 닮았을지도 모르겠어**

언제쯤 인류는 마음의 회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집단상담 중 일어난 일은, 제 상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하고, 연고를 바르거나 침을 놓거나 수술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 어렵더군요. 게다가 참 비싸더군요.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묻어두게 되는가 봅니다.

그날은 유독 과묵했던 집단상담 동료가 이야기를 했던 날입니다.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피해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침도 못 삼키고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칠게 수많은 감정(감동, 경악, 분노)이 들끓었습니다. 한참 숨을 고르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한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A씨 잘못 하나도 없어요. A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제 기억 중 하나가 떠오르더니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SF(공상과학) 영화의 단골소재인 '시간여행'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학교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피해 직후에 얼결에 겪은 일을 털어놓았던 순간입니다. 서로 어찌나 당황했던지요. 수련생이던 상담사 선생님이 온 힘을 담아 제게 말했습니다.

"0씨 잘못 하나도 없어요. 0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후 6개월간, 상담사가 고집스럽게 들려주었던 그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내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그 문장들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문장들 밖에는.

진심으로 그 문장에 온 체중을 얹던 그 순간, 비로소 그 문장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제게 그 말을 해줬는지,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상인지 기억인지 속에서 전과 달리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현실에서 제 앞의 동료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그 문장이 진짜 마음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제 주위를 그 문장이 떠돌고 있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 깊이 들어와서 치유해 주려고 말이죠. 그날 헤어지면서 그 동료를 말없이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이 포옹의 따스함과 아까의 문장이 그녀의 수호천사처럼 그녀 주변에 머물기를 바라면서요. 알맞은 때에 그녀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기를.

1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SF같은 치유의 순간. 그 순간을 만든 건, '라다'님과 활동가 감이님의 지극히 현실적인 노력 덕분이더군요. (라다님의 노련

함, 감이님이 매주 준비한 다양한 간식과 마지막 주의 생화와 케이크… 그 현실노력!) 이 아이러니를 깨달은 건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였습니다. 인류가 마음을 정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치유의 순간을 기획하는 그녀들보다 더 공상과학 같은 존재가 있을까! (요즘같은 정치시국에 말이죠~할말하않)

### 친구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세상으로

마지막 시간, '라다'님이 오라클카드를 한장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뽑은 카드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담 동료들을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집단상담을 통해 대화의 치유력을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화카드 모더레이터' 과정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기질의 대화 친구들과의 교류를 안전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해온 독서와 글쓰기를 수업으로 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활동가로서 교육도 수료했습니다. "성과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이제 제게 트라우마만을 뜻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친구, 치유적독서/글쓰기친구, 성교육활동가친구 등등!

너무 자랑을 늘어놓았네요. 기특해서요. 제 자신이요. 여전히 웅크리고 누워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런 자신에게 다정해졌습니다. 희망을 자주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사는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통뿐인 저의 세상이 여기 있고, 그 고통을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세상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진 두 세상 사이에 '친구'라는 징검다리들이 놓인 것 같습니다.

이 징검다리들이 '홀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목표가 생기니 이리저리 배우고 도전하게 되네요. 언젠가 저도 생존자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서요.

10주의 집단상담은 종결되었지만, 제 삶에는 여전히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과 심하게 싸운 날에는 동료들의 응원이 육성으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아, 게다가 '마더피스' 타로카드는 상담 마지막 날 당장 구매해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종종 아침저녁으로 뽑아, 제 마음을 살피는데 씁니다.

무엇보다 화요일마다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1~2달 마다 후속 모임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모임때 "대화카드"를 배워서 바로 써먹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피해 경험을 넘어서 더 깊이 연결되고 싶은, 친구들이 생겨서 연말연초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저도 도움이 되기를.

열림터 온라인X청소년X섹슈얼리티 스터디

# 어려우니까, **스터디합시다!**

낙타 |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도 많아졌어요.*
*생활인 역시 온라인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자들의 혼란 역시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하여 시작한 온오프스터디! 좌충우돌 온라인 탐방기를 전해드립니다.*

열림터에서 청소년 생활인을 지원하며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과 생활인의 섹슈얼리티의 교집합이 그렇습니다. 온·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음에 따라 생활인 역시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 증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밀함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생활인 A부터 Z가 겪은 사건까지 뻥뻥 터지는 교집합의 사건들로부터 열림터 활동가들의 궁금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터디는 열림터 활동가는 물론, 관심을 가져준 여성주의상담팀 경진, 생활인 개별성교육 강사 호연과 함께했습니다.

* 이 글은 스터디에서 멤버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스터디 첫날, 멤버들과 머리를 맞대어도 풀리지 않은 의문의 지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내담자의 비밀 유지는 성폭력 생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큼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리하고, 키워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궁금한 지점을 나열해나갔습니다. 쌓여가는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직접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 보자!"라며 호기롭게 익명 채팅에 들어가 보았지만, 검색어부터 다른 모양인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과 경험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모아 온라인 경험이 많고 스터디 멤버들이 만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청소년 5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열림터 내부에서 분석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이 총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질문1** SNS와 일상: 사용하는 SNS, 온·오프라인 비교

**질문2** 온라인 공간과 친밀한 관계: 기대하는 관계, 관계 유지/변화, 온라인공간의 인기

**질문3** 위험들: 관계 맺기의 불안과 후회, 감수하는 정도, 상상과 실제, 위험 인지 여부

**질문4** 성폭력 피해와 온라인: 온라인에 몰입할 때 상황, 시기

스터디 멤버들과 인터뷰 녹취록을 나누고,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으로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를 맞대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의

지점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원자의 시선에서는 범죄로 읽히지만, 당사자는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의아한 지점과 이해되지 않는 은어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범죄의 언어로 개념화해보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내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한얼은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범죄'를, 부천시 일시 청소년 쉼터 별사탕의 홍복은 '온라인 가출팸 헬퍼-헬프 커뮤니티의 A-Z'를 발표해주셨습니다. 헬퍼-헬프, 가출팸 관련 기사는 90년대부터 남아있습니다. 여관으로 유인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범죄양상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기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거리와 상관없이 유인, 익명성으로 더 대담해지고, 플랫폼이 더 다양해짐으로써 범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스터디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와 나누는 결과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3개의 파트로 낙타, 수수, 호연이 발표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발표1** 청소년과 온라인 공간에 대한 궁금증 - 지원자의 질문들, 당사자의 대답들
**발표2** 지원자의 관점에 대한 고민 - "위험"한 관계와 실천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 정리하기
**발표3** 일상을 구성하는 친밀성과 위험의 그물망

이번 스터디에서는 위험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위험과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열림터는 피지원자의 안정을 위해 '친밀성의 관계를 둘러싼 생존자의 환경을 넓게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

©한국성폭력상담소

기' 그리고 성교육강사 호연은 '다양한 관계를 구분하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열림터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 정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된 이 스터디는, 당사자의 경험을 들을 수 없었다면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생존자 지원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다섯 분의 청소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젠더폭력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의 부재,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는 **우리의 정치적 책임 문제**이다.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 아래로 보인 행보는 일관적입니다.*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윤 정부의 문제적 행보, 조목조목 짚어봅시다.*

## 끊이지 않는 젠더폭력과 참사, 부재한 인식과 정치적 책임

7월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한 대학생이 건물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같은 학교 또래 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밀쳐져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젠더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프레임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건 학생 안전의 문제고 성폭력이지 여성폭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교육부와 해당 학교가 내놓은 대책은 CCTV 증설과 특정 단

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성폭력 예방교육 뿐[1]이었다. 피해자 유가족은 사건 이후 학교 쪽에서 따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9월 여느 날과 같은 평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하철 역무 노동자가 흉기에 찔렸다. 피해자는 화장실 내 설치되어있던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3년 가까이 스토킹한 입사 동기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여가부의 다양한 1366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상담, 주거나 법률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훨씬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발언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더 보호했다면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여가부 지원을 더 받았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10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 핼러윈을 기념하는 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어 전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으로 몰렸다. 지자체와 경찰은 많은 시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안전조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경찰은 광화문 집회·시위 대응과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했다. 안전조치 없는 거리에서 결국 158명의 목숨이 사라졌

1) 인하대 성폭력 피해자 유족 첫 인터뷰 "우린 진심 어린 사과 못받아", 한겨레21, 박다해기자, 2022. 12. 22일자

다(이후 참사 생존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였다.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염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

대학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초기에 학생 안전 문제이고 성폭력이지 여성폭력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사건을 두고는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잇달아 발생한 젠더폭력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에게 발생한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인식, 그저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다해진다는 메시지가 여성 정책의 총괄, 조정역할을 지닌 전담부처 장관을 통해 발설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주요 정책 공약처럼 제시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로 이어졌다. 성평등, 성차별, 젠더폭력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방식으로, 실용적인 서비스 차원의 문제로 위치지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당론 성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

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고, 여성노동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실종, 인간이 아니라 인구에 집중하는 사회, 구조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는 더 불안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10. 29 참사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은 57%에 달했고, 시민 10명 7명은 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에 있고, 그 중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그러나 10.29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2) '정치적 책임' 실종...위험에 방치된 나라, 경향신문, 박송이 기자, 2022.11.12.일자

장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특별수사본부는 소방당국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 부재한 자리에 소방,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만이 남은 꼴이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우리에게는 시민으로서 정치제도를 감시하고 그 제도 안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집단적 책임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된 정치적 책임은 영향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행위자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국가와 국제기구에 압력을 넣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적 부정의를 줄이거나 제거할 책임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서 져야한다'고도 했다.[3]

끊이지 않는 젠더폭력과 시민의 삶, 안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에게 정치적 책임을 기대하기보다, 공유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시민들이 구조적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집단적 행동을 실천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자.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 마련이라는 국제사회 흐름과 성평등을 위해 우리사회가 쌓아온 역사적 성과가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는 행동에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

3) 10월 6일 한국여성학회는 여성살인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기획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을 향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12월 27일 진행된 〈여성가족부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살롱: 지워도 지워도 안지워지지〉에서 예술사회학자 이라영님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의 언어를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의 회복'을 강조했다.

#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

앎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적극적 합의의 다섯 가지 원칙*
*① 명시적으로 ② 의식이 있을 때 ③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④ 평등하게 ⑤ 모든 과정에서 항상*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2022년은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를 알리는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간 한 해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적극적 합의'를 강조해 온 지 햇수로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이 개념을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난이도별로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는 방법!

## 난이도 하. 활동가에게 설명 듣기

올 하반기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들은 '찾아가는 적극적 합의 교육'을 진행하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적극적 합의 교육은 이론 강의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구성되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무료 교육은 마감됐지만, 유료 교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제안해보세요. "올해 성폭력 예방 교육, 적극적 합의 교육 어때요?"

**난이도 중. 자료 살펴보기**

그동안 상담소가 쌓아온 활동 자료들은 적극적 합의를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2021)' 결과와 적극적 합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된 가이드라인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 다양한 질문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둘러싼 개인의 경험과 실천, 사회구조적 조건과 맥락을 이야기 나누는 집담회 자료집 「동의×동의, 적극적 합의」, 「16세 미만의 '동의'」 등등.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정말 많아요!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적극적 합의 활동 자료만 핵심적으로 모아 볼 수 있는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 난이도 상. 워크숍 직접 해보기

상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 합의를 위한 워크숍', '적극적 합의 레이더 차트', '친밀한 관계를 위한 동의-감정 그래프', '동의를 판단할 때 나의 기준은?' 등 각종 워크숍 활동지(워크시트)를 PDF 파일로 공유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올 하반기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적극적 합의 맞춤형 워크숍'에서 실제 활용했던 워크숍 활동지를 재가공한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워크숍을 직접 해보세요. 적극적 합의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저마다의 경험과 생각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편, 맞춤형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이 멋진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만나 온라인 게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랜덤 플레이와 경험 기반 플레이 총 2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적극적 합의를 알릴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공유하고 성인권 교육 등에서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 합의 스터디를 함께한 활동가들의 책 추천

**산's PICK _ 저스틴 행콕 글/푸크시아 맥커리 그림 『그래서, 동의가 뭐야?』**

알록달록한 색감과 개성 넘치는 그림이 눈을 먼저 사로잡아요. 덕분에 가볍게 다가갈 수 있고, 내용 또한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동의'에 대해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묻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줘요. 누군가에게는 쉬운 의사표현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며, 공정과 평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어른도 어린이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동은's PICK _ 크리스틴 R. 고드시『왜 여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하는가 : 그리고 경제적 독립에 대한 논의들』**

이 책의 저자는 국가사회주의가 가진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섹스'를 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동원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비교적 평등하게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시장의 힘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놓았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적 권리로서 동의를 말할 때, 경제적 독립, 더 나은 노동조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 책이었다.

**신아's PICK _ 캐서린 앤젤『내일의 섹스는 더 나아질 것이다』**

캐서린 엔젤은 미국의 '성적 동의'에 관한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동의'로 해결할 수 없는 성적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캐서린 앤젤에 따르면 섹스의 본질은 인간 취약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취약성을 다루기 위해 다른 윤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완전한 자율성과 완전한 자기 지식"이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타인의 영향을 수용하고 자기 권력을 해체하며 감정과 감각을 모험할 수 있다.

나는 사회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을 탐구하고 만나는 개인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캐서린 엔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섹스 관계가 비정치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캐서린 엔젤이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동의'는 'yes' 또는 'no'의 선택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동의' 담론은 단순히 '섹스 전에 동의를 구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의'가 의미 있으려면, 누군

가의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사회적 취약성이 약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택이 실패나 폭력으로만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게도 정치적 문제다.

그래서, 내일의 섹스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성적 동의 담론은 무엇을 함께 말하고 바꿔야 할까?

**앎's PICK _ 카일 마이어스『젠더 프리』**

저자는 아이가 스스로 성 정체성을 선택할 때까지 아이의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키우는 '젠더 프리 육아'에 도전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에게도 아이의 생식기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딸'이나 '아들'처럼 성별화된 대명사가 아닌 이름이나 '아이'처럼 젠더 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한다. 옷이나 장난감을 살 때도 아이가 '여성용' 또는 '남성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색,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고르도록 지지한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라온 저자의 아이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편안하게 표현하며, 타인의 정체성을 추측하기보다는 물어봐야 한다는 걸 일상에서 배운다.

젠더 프리가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떻게 젠더 프리 육아를 할 수 있을까? 저자의 모험과 시행착오를 따라가며 나는 '적극적 합의가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떻게 적극적 합의를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실마리를 함께 찾아본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동의에 관한 인식과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억압과 통제에 익숙해지도록 자라며, 타인의 의사를 물어보기보다는 '눈치껏' 추측하도록 일상에서 훈련된다. 어쩌면 젠더 프리가 당연한 사회는 적극적 합의가 당연한 사회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와 <적극적 합의 카드게임>은 뒷표지 QR코드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 시리즈 집담회 **로우(LAW)킥** 뒤에 **숨은 내심**

감이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로우(LAW)킥,*
*뜨거운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 번의 집담회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지난 11월 17일, 시리즈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이 3차에 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리즈 집담회 로우(LAW)킥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법적 해결과정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한계와 법적 쟁점을 나누고,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 번의 로우(LAW)킥을 날리기 전에, 상담소 활동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는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관련 법률 제 · 개정 운동과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

초기 한국 여성운동의 주된 의제는 제도적으로 여성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열심히 투쟁한 결과 가장 도드라진 성취는 젠더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성폭력운동사에서 성폭력 관련법의 제·개정은 90년대 초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부터 최근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핵심의제입니다.

2018년을 전후로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사회시스템과 문화, 일상이 변화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 사회의 행동 양식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환경이나 조건, 구조를 조명하는 대신 당사자들의 행보에 집중함으로써 권력과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으로만 다루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성폭력 사건은 어느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벼운 가십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자들은 재판에서 알게 되는 민감한 정보나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올려진 개인 SNS의 내용들을 가감없이 보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시선으로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의심받기 일쑤였습니다.

### 사법절차 외에도 사건 해결방법은 많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폭력 사건의 사법적 해결은 많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21년 한해 동안 진행한 성폭력상담 1322건

중, 법률지원을 요청한 상담은 총 772건(중복)으로 전체 상담의 58.4%에 달합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상담 경향을 보면 연도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상담이 법적 지원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를 인정받고, 공권력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이후 치유와 일상회복을 하는 데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 외에 피해생존자들이 상담소에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은 의료지원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전문기관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약물을 제공받아 빠른 치유와 회복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피해자로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상담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활동가들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거나 제도를 바꾸어 내는 공론화도 가능합니다. 사법 절차는 아니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기업이나 조직 혹은 공동체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고, 관련 조직이나 회사 대표 등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의 직접적 소통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려 사과를 받거나 금전적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직접 요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 나열한 방법 외에도 피해자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적절한 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결은 여전히 피해생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법적 해결을 염두에 둔 분들을위해 최근 성폭력 재판에서의 주요한 백래시 흐름을 짚은 로우(LAW)킥 집담회 3회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 성폭력의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첫 번째 주제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의 증거능력 상실을 위해서 혹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가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직접 진료 없이 서면만으로 '감정'하는 상황의 부적절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래시에 맞서는 전략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이대로 괜찮은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분별한 사실조회촉탁으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거나,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개인 SNS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방어가 아닌 피해자를 향한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부적절하게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들을 제재하는 방법과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권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담회 주제는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로 성폭력 피해자가 졸지에 피의자로 뒤바뀌는 역고소의 실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역고소의 유형을 살펴보기도 하고, 수사 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톺아보면서 역고소 피소시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더 논의해보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고,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사법절차를 선택한다면 사건 진행상황과 일정하게 심리적 거리를 두면서 피해자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조건과 상황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사법절차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보여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때때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는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길고 울퉁불퉁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버겁고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크게 상처받습니다. 심한 경우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면하는 어려움들은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사법절차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의심하거나 피의자에게 과도한 권리가 치우친다면 제대로 된 판단은 어려울 것이고, 피해자의 치유회복도 요원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생존자들이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폭력 사건은 법적 절차뿐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안과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상상하고 발맞추어 가겠습니다.

▲ 로우킥 1회차 자료집

▲ 로우킥 2회차 자료집

▲ 로우킥 3회차 자료집

# 산행하는 **페미니스트들**, **지리산에서**의 한 걸음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상담소에는 유독 '산 타는 페미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번, 주말산행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번에는 지리산 종주에 도전했습니다.*
*뜨겁고 열기 넘치는 종주기,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리산의 길목인 구례행 기차를 탔다. 3박 4일간의 산행을 위한 커다란 배낭에는 등산용 스틱과 음식, 옷가지뿐만 아니라, 각자 지닌 '지리산 종주'의 기대와 열망이 넘치게 담겨있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립공원 대피소들이 문을 닫았다가 2022년 6월부터 개방되어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우리 상담소에서의 지리산 종주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7년 7월 말, 여성주의 자기방어 '다른 몸 되기' 프로젝트팀의 열여섯 여자들이 그 첫 물꼬를 텄다. 자기방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용산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출발해 새벽 4시 40분경 성삼재부터 시작한 산행. 처음에는 "힘들어요. 더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아요."라던 청소녀들은 신기하게도 갈수록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능선을 따라 하루

에 10시간씩 사흘을 걸어 천왕봉 일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다른 몸'이 되어있었던 감흥을 잊을 수 없다.

10년 뒤인 2017년 10월 초, 연휴를 맞아 상근활동가들과 구례에서 나고 자란 '지리산 날다람쥐' 회원으로 구성된 네명의 '지리산 바라기'들의 산행이 이어졌다. 당시만 해도 연하천을 지나 벽소령 가는 길에 밧줄을 타고 바위를 올라야 하는 코스도 있었다. 그 앞에서 비를 맞은 채 난감해하며 서 있던 여성 두 분을 만났다. 엉겁결에 "저희는 페미니스트입니다!"며 소개를 했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바위를 탔다. 이후 자연스럽게 우리팀은 4명에서 6명으로 불어났다. 다음 날 아침부터는 날이 개어 멋진 운해도 만나고 무사히 종주를 마쳤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함께 산행을 즐기는 '산페미'가 되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중순에 상담소의 세 번째 지리산 종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산행에는 상근·비상근 활동가 일곱명이 뭉쳤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쌓여있지만 다른 동료들의 배려와 응원 덕택에 예정대로 지리산으로 향할 수 있었다. 7명 중 종주가 처음인 활동가도 있어 우리는 지난 5월부터 매월 마

지막 주 토요일이면 북한산에서 연습산행을 했다. 문수봉, 의상능선, 백운대 등을 오르며 조금씩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워왔다.

지리산 종주는 늘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을 뛰게 한다. 이번에는 구례 읍내에서 하루를 묵고 새벽에 택시로 이동해 성삼재에서 간단한 몸풀기 체조로 산행을 시작했다. 노고단에 도착했을 때는 막 동이 트고 있었다. 섬진강 위로 퍼져있는 운무는 산과 들판을 순식간에 거대한 바다와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고,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천왕봉은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임걸령 삼거리, 노루목, 삼도봉, 화개재를 지나 12시경 연하천에 도착했다. 연하천 대피소는 공사 중이었지만, 물이 있고 데크도 개방해줘서 우리는 점심식사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 겨우 1개의 라면을 끓이면 알맞을 코펠에 라면 3개를 넣고 끓이는 신공에 감탄하고 그 맛에 매료된 우리는 행복했다. 저녁에는 벽소령 대피소에서 햇반을 사 짜장밥을 만들어 먹으며 미리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해준 동료들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에 감사했다. 옆 테이블에는 다른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리산을 좋아해 찾아온 공통점만으로도 반가웠다. 산에서는 물이 귀해 설거지를 물로 하지 않고, 뜨거운 물 한 컵을 끓여 돌아가며 그릇들을 헹군 뒤 티슈로 잘 닦아내어 정리했다. 모든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위해 배낭 속에 채곡채곡 담겼다. 밤에는 대피소 측에서 안전교육을 했는데 그동안 발생한 사고 사진들을 보여주며 절대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예쁜 등산지도 손수건을 선물로 주었다. 코로나 여파로 모포대여는 안했지만, 마루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세석평전을 비롯해 촛대봉, 연하봉 등 굽

이굽이 멋진 절경들을 감상하며 장터목까지 우리 일행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걷고 또 걸었다. 우리는 지리산의 넉넉한 품에서 대자연과 호흡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중이었다. 아래로 보이는 산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산맥을 이루며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잇고 있었다. 중간중간 종일 걷느라고 피곤한 다리를 펴고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과 나무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결을 즐겼다. 지나던 등산인들이 여성 7명이 함께하는 것이 생경한지 "어떤 관계냐?"고 물어 동료들이라고 했더니 정말 부러워했다.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제 천왕봉은 불과 1시간 30분 거리에 있고, 이틀을 꼬박 걸어온 길 뒤쪽으로 아득하게 노고단이 보였다. 와글와글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좁은 숙소의 2층 마루바닥에 7명이 줄지어 누워 몸의 긴장을 푸는 요가도 하고 파스도 서로 부쳐주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마지막 날은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천왕봉을 향했다. 온통 깜깜한 산길을 앞·뒷사람의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걸었다. 마침내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어린 일출을 마주했다. 처음에는 검붉은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어느새 주홍빛으로 변하면서 저 멀리 동해에서 태양이 솟아 올라왔다. 그 장엄함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어둠 속의 산하가 빛을 만나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 우리에게 지난 3일동안 길을 열어주고 멋진 일출까지 보게 해준 지리산에 무한 감사함이 느껴졌다. 아쉽지만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통천문, 제석봉, 고사목 군락지를 지나 장터목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서둘러 아침을 해 먹고 백무동 쪽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다소 지리한 돌계단 길을 5시간여 정도 걸어 드디어 백무동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무엇보다 7명 모두 안전하게 산행을 마칠 수 있음에 서로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나눴다. 모두들 준비과정부터 매끼 식사 준비며 짐 분배 등 기꺼이 자기 역할을 했고, 부족함이 보이면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채워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에선 숨이 턱턱 막히고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옆의 동료를 의지하며 걸어온 산행. 이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오름을 함께 체감했다. 이보다 더한 선물이 있을까! 이 뿌듯함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지리산 종주에서 얻은 몸과 마음의 힘을 한라산, 설악산 등으로 계속 이어가며 페미니스트로서 늘 새로운 도전과 상상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리라!

### 산행 후기~~

♠ : “진짜 페미니스트들이랑 산은, 산행은 잘 맞는 거구나 싶어요. 알맞게 식재로와 간식을 고르고 준비하고 쓰레기를 되가져 오고, 양념까지 남김없이 먹고 몸의 순환을 해뜨기와 해지기에 맞추고, 식물들 속에서 걷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런 거 페미들이 젤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걸어온 성삼재부터 천왕봉까지의 길이 우리 몸에 들어왔고, 이제 다른 무언가가 되어도 이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제 친구들도 너 같이 만성피로 인간이 무슨 지리산 종주냐고 그러고 저도 자신이 없었어서 출발 직전까지도 계속 가는게 맞을까 고민했었는데요ㅠㅠ. 종주 잘 마치고 목욕탕 뒤풀이까지 끝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예요”

♥ : “지리산 종주를 해낼 수 있을지 계속 의문이었는데 베테랑 산악인의 도움으로 종주 할 수 있었어요!!! 지리산 종주를 해내니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막 뿜어나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 “먹고 덩싸고 걷고 가깝게 붙어 사람으로 진득하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어 너무 감사합니다. 걸어서 지리산 만큼 높은 곳, 종주만큼 긴 거리 다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 : “여러분 덕분에 경치도 즐기고, 사진도 남기고, 안전하게 무사히 지리산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넘넘 감사해요. 살면서 갚아나갈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지금 하산했을 것^^”

♧ : “무엇이 우리를 지리산행으로 이끌었을까를 생각해보면 페미니스트로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을 견디며 나의 한계까지 인정하고 사랑하며 자연과 호흡하고픈, 그리고 더 멋지고 의미있게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픈 열망? 산페미 화이팅!”

★ : “여운이 가시지 않은 행복감에, 성취감에 취해 아름다운 날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 상호돌봄의 디자인, 외주를 넘어 동등한 관계의 협업으로

산 | 회원홍보팀 활동가

*비영리단체의 외주란 넉넉지 않은 예산과 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본을 쓸 수 없는, 영리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비영리단체와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제시해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의풍경>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2022년 초,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에서 조금은 특별한 협업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이름하여 '상호돌봄의 디자인'! 올해에는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제작으로 성문화운동팀과 합을 맞춰보았는데요. 새로운 경험과 관계 맺음에 상담소를 초대해준 '오늘의 풍경(이하 '오풍')'의 인아, 희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산 _** 반갑습니다. 오풍의 새로운 협업이 뭔지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희원 _** '상호돌봄의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외주란 디자이너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결과물을 받는 방식인데, 디자인이라는 게 사

실 맥락이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전체 프로젝트의 맥락 속에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의존하는 상호 디자인 협업 방식인 거죠.

**산 _**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실현한 게 참 멋지고 대단하네요. 처음 제안이 왔을 때, '돌보는 디자인'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돌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아 _**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떤 아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의 전부라는 생각이 많은데, 그 외에도 필수적인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디자이너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전에 다른 스튜디오에서 일했을 때 그런 일을 여성 디자이너들만 하는 걸 관찰한 적이 있고요. 분명 필수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저평가되는 것이 돌봄노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산 _**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상호돌봄'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나요?
**희원 _** '실현이 됐다'기 보다는, 이 원칙을 지키려 하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추려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산 _** 처음에 웹페이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각자 생각하던 상이 달라서 갈피를 못 잡았다고 들었어요. 이때 오퓽에서 제안한 퍼소나 워크숍(Persona Workshop)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퍼소나 워크숍은 어떤 건가요?
**희원 _**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 현실에서 정말 이것을 쓸 것 같은 구체적인 인물을 정해보는 거예요. 적극적 합의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려는데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상을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퍼소나 워크숍을 통해 누구에게 이 웹페이지를 전달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인물을 만들어보기로 했죠.

**산 _** 성문화운동팀도 저도 오풍 덕에 퍼소나 워크숍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상담소 활동가들이 오풍과의 협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풍은 어떠신가요?
**인아 _** 제가 디자이너로서 큰 도전을 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웃음) 바로 웹디자인을 했다는 점인데요. 저는 원래 전문적으로 웹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새로 배워가며 한 것이라서 제게도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걸 해내고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산 _** 함께 일하면서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뭘까요?
**희원 _** 저희에게는 익숙한 툴킷이라는 용어에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협업의 마지막 순간까지 '툴킷'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하고 있던 게 달랐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었죠. 저희는 웹페이지 자체를 툴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활동가분들이 전화로 '이제 이 웹페이지에 올라가는 툴킷은 어떤 게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이 툴킷이다.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냐'며 급발진하는 저를 활동가분이 안심시키고 다행이라고, 또 뭘 따로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본인들도 걱정하고 있었다고(웃음) 그때가 10월 말이었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과물에 대한 상이 달랐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재밌고 웃기네요.
**인아 _** 희원이 그 통화를 하고 와서 제게 이야기해줬던 게 기억 나네요(웃음)

**산 _** 상담소가 이야기하는 의제가 여럿 있잖아요. 혹은 인아 님이나 희원 님이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의제도 있을 테고요. 상담소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의제가 있을까요?

**인아 _** 저는 상담소 활동 중 가장 전통이 있고 강력한 것은 생존자말하기대회라고 생각해요. 생존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당히 두 발 딛고 설 수 있는 판을 만드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 전통이 길어서 그 길을 되짚고 발굴하고 시각화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희원 _** 저는 예전에 책『보통의 경험』을 읽었어요. 지금 읽어도 그럴 테지만 정말 필요하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많이 알려지고 팔렸으면 좋겠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개정판이 나온다면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산 _** 두 아이디어 모두 정말 좋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아 님과 희원 님은 5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5년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을지, 아니면 오퐁이 어디로 가고 있을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인아 _** 저의 좌우명은 카르페디엠입니다(웃음) 늘 오늘을 살아와서 이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희원 _** 5년 후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웃음) 하지만 뭐, 인생이 여태까지 더 나빠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해요.

**산 _** 상담소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일해요(웃음) 귀한 시간 내어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보러가기 ▶**

#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 인사드립니다!

닻별 | 회원홍보팀 활동가

*작년 하반기, 상담소 곳곳을 바쁘게 누빈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의 노을, 원영, 은화, 지윤입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눈길로 상담소를 살펴 준 네 분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화** _ 자원활동가 은화입니다. 졸업을 1년 정도 앞둔 대학생이고요, 사회교육과 사회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활동 말고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 대학생입니다.

**지윤** _ 정지윤입니다. 저도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 저는 조금 생소한 전공인 아동가족학과 정치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을** _ 저는 노을이고,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자원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일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신기하고, 기대를 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영** _ 저는 손원영이고요. 문화인류학을 부전공 했고 철학과가 본 전공입

니다. 전에는 리셋에서 잠깐 피해자 지원을 했었고요. 당시에 만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업소에 취직하려고 하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성매매에 대한 의문, 업계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시위들이나 글을 주로 썼습니다.

## 1 한국성폭력상담소,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자원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은화 _** 학교 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모집했는데, 마침 인권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 학보사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폭력 문제가 결국은 구조의 문제에서 기원한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학교나 교실 속에 있는 학생들이 성폭력과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담소에 왔습니다.

**지윤 _**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가 저랑 똑같은데요. 전공이 아동가족학이다 보니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를 많이 접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젠더관점에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접했고, 실질적으로 관련 이슈들을 좀 더 가까이서 접하고 더 깊게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1순위로 적어 신청서를 내고, 우연히 잘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노을 _** 대학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 상담소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상담소라고 하면 상담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자원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단순히 피해자 상담을 넘어서 법제화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들을 해결하려는 곳으로요. 대학생 신분으로 운

동의 생리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자원활동 모집 글을 지인분이 공유해주셔서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영 _** 저는 성매매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성매매 당사자들이 내담자로 올 수 있는 성소수자 단체, 장애여성 단체 등 여러 곳에 메일을 보냈는데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는 곳이 상담소밖에 없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성폭력/가정폭력)통합 상담소가 다루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한국성폭력상담소처럼 전문화된 상담소보다 지식적으로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모든 폭력의 문제가 이어져 있어 외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2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름 선정 이유는?

**노을 _** 가부장제 사회에서 '반성폭력 문화를 같이 배우고 구조적인 성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에 균열을 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균열의 시작 틈'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길어서 '틈'으로 줄였습니다.

**원영 _** 〈켈리번과 마녀들〉이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었는데요, 후원자님 역시도 운동의 주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틈'이라는건 단순히 가부장제 하나로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대 서사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윤 _** 주 업무는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참관해서 행사 후기를 작성하기도 하고, 조금 더 대중적인 자체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상담소 행사를 친근감 있게, 부담 없이, 후기를 읽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노을 _** '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랑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단으로서 엄청 많은 활동이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제화 운동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일상에 균열을 낸다'는 의미로 우리가 독자들의 일상에 잠재해 있는 가부장 문화를 해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3 6개월간 상담소를 드나들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은화 _**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학내 집회나 시위에 주로 취재를 하러 다녔는데,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시위자로 참여하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사건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 그래 이 문제 해결되어야지~'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느껴지니까 몰입도가 다르더라고요. 친족성폭력 문제를 경험한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임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게 체감되어서 찡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당일 광화문을 통과해서 행진했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신경쓰였어요. 바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하나도 신경쓸 필요 없는 건데 외부의 목소리가 의식되더라고요. 친족성폭력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행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반응이 신경쓰여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기억에 남아요.

**지윤 _** 저는 〈미투운동 중간결산〉에 참여한 게 인상깊었어요. 행사 규모도 꽤 크고 참여자도 많았기도 했고요,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미

투운동이었어서요. 그때 고3이었는데,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세션을 듣는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잃었었구나. 그 행사에 가 보니 아직도 그 당시의 피해자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관심을 잃었던 제 모습이 좀 반성이 되기도 했고요. 또 피해자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노을** _ 저는 행사 참여를 많이 못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건 아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한다' 라고 주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우리가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집에서 복기할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성문화운동팀의 〈적극적 합의〉 교육을 듣고 기자단끼리 이야기 나눌 때, 우리끼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공유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나 태도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4 가까이서 본 '상담소'와 '활동가'를 각각 한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지윤** _ 저는 상담소 하면 가족같은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도 포근한 집 느낌이 나고요. 사무실이 두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활동가끼리 사이가 돈독해 보여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네요. 연장선으로 활동가를 떠올리면 자매애, sisterhood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연대가 아니라 여성 활동가로서의 맥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은화** _ 다른 모임에 가면 항상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질문들을 항상 받았어요. 한국 사회의 전형에

맞춰서 잘 답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고요. 여기서 자원활동 하며 만난 사람들은 같은 일과 목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압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저 자체를 봐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환대로 하겠습니다.

**노을** _ 저는 연결감, 연결성. 각자 관심사와 의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마냥 똑같지 않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공통된 대의를 위해 노력하는게 연결감 있다고 느껴졌어요. 상담소 공간 특성도 재미있었는데, 주거지처럼 생겼는데도 공적 공간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중간에 의견교환이나 토론이 쉽겠다 싶었어요. 한국의 일 문화는 토론을 많이 안 하는 문화이지만 여기는 확실히 많은 느낌? 해방감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원영** _ 저는 '돌봄'이 생각이 났어요. 근대적 자아라고 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오롯이 혼자 책임을 지는 존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취약점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돌봄은 외부 환경과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같이 나아가자는 체제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 식사할 때 보면 서로 대화도 잘 주고받지만, 개인 공간을 명확히 존중하더라고요. 이건 돌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서로를 평어로 부르는 점도 기억에 남는데, 선배활동가나 상사분들과도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조직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과 함께한 인터뷰는 무려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요, 전문이 궁금하다면 아래 QR코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강다영, 권혜경, 김다인, 김다형, 김대연, 김민규, 김민준, 김복희, 김선우, 김성현, 김소운, 김수아, 김아연, 김예리, 김예원, 김유진, 김윤경, 김윤중, 김주헌, 김지연, 김지혜, 김태경, 김하연, 김현지, 김효신, 나수홍, 남규민, 남혜란, 노주희, 류근영, 문준희, 박미정, 박상신, 박창민, 방한나, 배진석, 봄공인중개사사무소, 선윤우, 성세희, 손동균, 송기훈, 송요섭, 신선, 신아름, 신우철, 신정훈, 신현숙, 양기진, 엄태건, 영실, 오은비, 오재석, 위정윤, 유승민, 유승재, 유승현, 윤성빈, 윤여연, 이가현, 이경수, 이도경, 이상원, 이선진, 이수진, 이아름, 이영욱, 이은지, 이은혜, 이정균, 이정열, 이정훈, 이주영, 이지우, 이지현, 이지혜, 이진우, 이혜정, 인세아, 장채원, 전효주, 정래준, 정민규, 정세미, 정수형, 정은지, 정지수, 정지원, 정지인, 정진아, 조현주, 지주혜, 진현주, 차지우, 채단비, 채은화, 최민아, 최수민, 최수진, 최용석, 최유경, 최익진, 최인기, 최인혁, 최재웅, 최정인, 하나은, 한승용, 한아름, 함진혁, 허정수, 허제, 허진아, 홍수진, 황승호(이상 114명)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주)피알판촉, (주)한샘, aaami, LEE JO HYANG, ooopiuu, 강경인, 강경자, 강남식, 강동화, 강동희, 강등록, 강민서, 강민지, 강보길, 강상현, 강선화, 강소희, 강숙영,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예진, 강유가람, 강윤정, 강은진, 강인화, 강재영, 강재희, 강지원, 강지윤, 강찬, 강창일, 강태원,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보경, 고봉섭, 고선영, 고선주,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임숙, 고재경, 고재영, 고정남, 고정민,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태우, 고하영, 고희경, 고희선, 공경희, 공다연, 공수현, 공주, 곽경화, 곽민환, 곽보매, 곽상아, 곽영화, 곽옥미, 곽윤이, 곽하진, 곽현지, 구민희, 구본효, 구향모, 구현지, 구혜린, 권구홍, 권김현영, 권미정, 권상범(리치몬드), 권서현, 권세린, 권세윤, 권소영, 권솔, 권수현, 권수혜, 권순호, 권영신, 권예선,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효중, 금철영, 길애솔, 길은정, 길지혜, 김가영, 김가인, 김가현, 김강빈, 김경선, 김경아, 김경주, 김경찬, 김경희, 김경희, 김계진, 김고은, 김광진, 김광현, 김규원, 김기태, 김기혜, 김나연, 김나연, 김나은, 김나은, 김나희, 김난형, 김다미, 김다영, 김다은, 김다은, 김다은, 김다혜, 김다희, 김다희, 김대삼, 김도린, 김도연, 김도열, 김도윤, 김도흥, 김도희, 김동령, 김동은, 김동한,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로사, 김리나, 김명민, 김명선, 김모래, 김문영, 김문주,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순, 김미옥, 김미현, 김민건, 김민규, 김민기, 김민범, 김민수, 김민아, 김민은,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민희, 김병준, 김보명, 김보연, 김보화, 김복연, 김상미, 김상완, 김상원, 김상정, 김새롬, 김샛별, 김서화,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애, 김선영, 김선재,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모, 김성문, 김성미, 김성수, 김성욱, 김성자, 김성호, 김성희, 김세명, 김세원, 김세윤, 김세형, 김소라, 김소연, 김소정, 김송연, 김송이, 김수, 김수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영, 김순원, 김슬아, 김승연, 김승재, 김승현, 김시우, 김시원, 김신아, 김신효정, 김아름, 김안나, 김안나, 김애라, 김양온, 김양지,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림, 김여진, 김연경, 김연경, 김연경,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유, 김연재, 김연희, 김영나, 김영룡,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영택, 김영환, 김영희, 김예람, 김예리, 김예리, 김예림, 김예준, 김예지, 김요섭, 김용선, 김우연, 김원국, 김원식, 김원우, 김유나, 김유리, 김유림, 김유영,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아, 김윤영,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선, 김은솔,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경, 김인솔, 김인숙, 김인혜, 김재원, 김재원, 김재호, 김재희,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정은, 김정혜, 김정희, 김정희원, 김종웅, 김종혁, 김종희, 김주아, 김주연, 김주영, 김주온, 김주희, 김주희, 김준, 김준, 김준범, 김준수, 김준태, 김준태, 김지민,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김해리), 김진리, 김진범, 김진아, 김진용, 김진희, 김찬유, 김채연, 김채연, 김채영, 김춘화, 김출배, 김치언, 김탁환, 김태연, 김태영, 김태현, 김태희,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하림, 김하영, 김하윤, 김학선, 김한선혜, 김한슬, 김해경, 김해랑, 김현란, 김현수,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 김현직, 김현진, 김현진, 김형근,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민, 김혜선, 김혜선,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은, 김혜인, 김혜정, 김혜준,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연, 김화숙, 김환종, 김효리, 김효선,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경, 김희라, 김희란, 김희성, 김희원, 나미나, 나성은, 나수정, 나윤경, 나윤지, 나인선, 나인영, 나하윤, 나혜선, 나희영, 남민영, 남병희, 남수민, 남순아, 남슬아, 남승현, 남정현, 남지연, 남지은, 남태진, 남현미, 남현우, 남현지, 남효정, 노미선, 노선이, 노영은, 노유성,

노윤주,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태운, 노희민, 노희섭, 더트리그룹(주), 도경선, 도병욱, 도서출판 움직씨, 도정호, 류길훈, 류란, 류신희, 류지은, 류진희, 류하연, 류한솔, 류현진, 류호윤, 류호정, 류호찬, 류희준, 마민지, 마정윤, 마준희, 목소희, 문경희, 문귀영,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박엘리,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혜준, 문효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영, 박기민, 박나연, 박다위, 박다해, 박대진, 박덕임, 박명선,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훈, 박상희, 박서영, 박서원, 박서진, 박서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준,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희, 박송이,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완,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환, 박슬기, 박승수, 박승호, 박시원, 박아름,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유림, 박윤미, 박윤성,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은진, 박은화, 박이수, 박이은희, 박인기, 박재문, 박재민, 박재민, 박재진, 박정란, 박정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정훈, 박종웅,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주현, 박준기, 박준하, 박지수, 박지언,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오, 박지원, 박지원, 박지현, 박지형, 박지희, 박진선, 박진표, 박진화, 박찬희, 박창경, 박초롱, 박한샘, 박한울,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지, 박혜남, 박혜민, 박혜상, 박혜하, 박효원,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반상환, 반순미, 반주영, 방영화, 방은제,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샛별, 배성신, 배수현, 배순희, 배우미, 배자하, 배종수, 배진영, 배진희, 배하늘, 배현진, 배화정, 백경원, 백경원, 백경흔, 백미록, 백세희, 백수미, 백인애, 백주현, 백지선, 백지연, 백현, 변순임, 변승현, 변유경, 변주희, 변지은, 변필건, 복서희, 부성필, 서권일, 서명숙,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용완, 서원, 서윤슬, 서윤정, 서은우, 서재선, 서정민갑, 서정애, 서정표, 서정현, 서정호,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혜미, 서혜원, 서혜진, 서효원, 서휘륜, 석아름, 석진주, 선우준, 선재희, 설연자, 성기원, 성시원, 성연이, 성예랑, 성현아, 성혜경, 세움교회, 소희성, 손경이, 손명구, 손명진, 손미연, 손미정, 손민우, 손상열, 손소희, 손슬기, 손연성, 손우성, 손원영, 손유진, 손정빈, 손준성, 손지민, 손지용, 손차민, 송다은, 송명희, 송상민, 송수진, 송용원, 송유정, 송유진, 송윤진, 송은숙, 송인경, 송지영, 송진아, 송차령, 송현민, 신경숙, 신경혜, 신기훈, 신누리, 신다희, 신동헌, 신명숙, 신민정, 신범식, 신상호, 신수아, 신영미, 신우정,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슬, 신현규, 신현주, 신혜림, 신혜미, 신혜숙, 신혜은, 신희원, 심상희,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은희, 심조원, 심혜련, 심혜림, 심효진, 썸스테이지, 안경훈, 안미향,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선민, 안소진, 안송연, 안원숙, 안유정, 안윤정, 안은혜, 안재훈, 안정규, 안제성, 안지희,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현수, 안형윤, 안희경, 양경아, 양기진, 양민희, 양선화, 양성옥, 양성은, 양수안나, 양영오, 양유경, 양윤정, 양은혜, 양은희, 양이솜, 양정민, 양지연, 양창아, 양해석, 양현경(이산), 양현구, 양효준, 어진희, 엄은지, 엄현경, 엄희수, 여온경, 여은진, 여진아, 염미지, 염정신, 오경민, 오경희, 오병근, 오상민, 오선곤, 오성화, 오성훈, 오세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승준, 오연경, 오영일, 오윤하, 오의정,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춘희, 우효상, 원경주, 원민경,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원찬희, 위은지, 유경미, 유경희, 유다솜, 유민수, 유병준, 유보람, 유선영, 유세정, 유수연, 유승규, 유승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인구, 유정수, 유정흔, 유준상, 유지아, 유지예, 유지혜, 유진, 유풀잎, 유현미, 유현승, 유현아, 유형하, 유혜진, 유호정, 윤경진, 윤나래, 윤다정, 윤선우, 윤성준, 윤소미,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수련, 윤숙경, 윤승현, 윤아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용호, 윤은정, 윤인규, 윤자영, 윤정선, 윤정원,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현아, 윤형심, 윤희정, 음선화, 이가영, 이강익, 이강화,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진,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화, 이규리, 이규호,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나임, 이남주, 이도경, 이도엽, 이동구, 이동규, 이동영, 이동원, 이동은, 이동현, 이명숙, 이명신, 이명현,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령, 이미정, 이미화, 이민아,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산하, 이산하,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재, 이상진,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희, 이선영, 이선택, 이선혜, 이선호, 이선희, 이설화, 이성은, 이성인, 이성주, 이세린, 이소림,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소현, 이수안, 이수연, 이수열, 이수정,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화, 이승구, 이승숙, 이승용, 이승은, 이승준, 이승진, 이애리, 이여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주, 이연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용택, 이우원, 이원형, 이원흥,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심, 이은애, 이은주, 이은지, 이은호, 이은화, 이의종, 이장하, 이재원, 이재원, 이재철, 이재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현, 이정화, 이종언, 이종은, 이종희, 이주영, 이주영,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아,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유,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인, 이지행, 이지현, 이진선, 이진우, 이진욱, 이진희, 이진희, 이참슬, 이창수, 이창희, 이채영, 이충애, 이태희, 이하연, 이하은, 이해사랑, 이해원,

이향심,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연, 이혜인,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화진, 이효린, 이희동, 이희섭, 이희수, 이희승, 이희진, 이희화, 임건호, 임경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보라, 임서준, 임선민, 임설아, 임소정, 임소희, 임여경, 임예은, 임오주, 임유영, 임은규, 임은재, 임재덕, 임정옥,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지현, 임천용, 임하나, 임현진, 임효진, 임홍섭, 임희수, 임희윤, 장다혜, 장미정, 장성연, 장성희, 장수경, 장수영, 장수진, 장여경,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재, 장은지, 장정윤, 장주영, 장주희, 장지승, 장진, 장하나,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병욱, 전서래, 전소연, 전소영, 전수인, 전수지,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은재, 전재혁, 전정현, 전지현, 전현정, 전혜영, 전혜진,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관식,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규빈, 정기영, 정나리, 정다솔, 정대근, 정대련, 정덕기, 정동연, 정두리, 정명화, 정문영, 정미사, 정민성, 정민이,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선영, 정소린, 정수연, 정슬아, 정승규, 정여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예, 정예슬, 정유림, 정유빈, 정유선, 정윤경, 정은령, 정은아, 정인호, 정재영, 정재우, 정재욱, 정재하지운,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아, 정지운,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초윤, 정현, 정현교, 정현우, 정혜윤, 정혜훈, 정효정, 정희수, 제하나,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상은, 조서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영주,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은샘, 조은숙, 조은율, 조은정, 조은희, 조인경, 조인석, 조인옥, 조일래, 조임춘, 조재연, 조재휘, 조주영, 조준희,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해송, 조혜연, 조현규, 조현선, 조현우, 조혜인, 조혜정, 조훈제, 좌유빈, 죤죤, 주광용, 주말기공소, 주명희, 주소현, 주식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엽,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현, 진새록, 진수희, 진시우, 차선주, 차성안, 차영선, 차현수, 차현영, 채우리, 채유리, 채은혜, 채현숙, 채훈병, 천정아, 천정환, 최강백, 최건호, 최경식, 최근우, 최금례, 최기영, 최다윤, 최동석, 최동인, 최란, 최미경, 최미림, 최미숙, 최미현, 최민서, 최민아, 최민욱,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상국사세,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세연, 최세진, 최소영, 최수연, 최숙희, 최아림, 최여정, 최연우,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용득, 최원일, 최유정,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식, 최은영, 최은정, 최익진, 최재유, 최정운, 최정택, 최지녀, 최지연, 최지원,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찬양, 최태순, 최한나, 최현경, 최현윤혁, 최현정, 최형욱, 최혜란, 최혜린, 최혜영, 최효선, 최희범, 최희진, 추민주, 추상아, 추선미,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표주성, 표하늘, 표혜림, 하다영, 하륭, 하승수,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하지수, 하지은, 하희정, 한기모, 한만천,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서영, 한소망, 한수경, 한승진, 한승효,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유림, 한윤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빈, 한지연, 한진영, 한채윤, 한해령,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건, 허광은, 허민숙, 허선형, 허성준, 허신애,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태균, 허혜진,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아현,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찬숙, 홍현진, 황미선, 황보승태, 황서연, 황선미, 황성기, 황성임, 황송원, 황숙희, 황예나, 황유미, 황정진, 황지원, 황진선, 황효진, 황휘 (이상 1,514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고재영, 김경헌,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엘, 김지은, 김효선, 꽁지팩토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미씨유럽,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헌,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양채원,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윤지원,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열, 이유미, 이유정, 이해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정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련, 정명종, 조인석, 조일래, 존타클럽,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한전부녀회(이상 71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문식, 강소영, 강은재, 강지혜, 고병진, 고지현, 고화정, 고희선, 곽선하, 권태형, 권혜준, 금보경, 김광현, 김기태, 김다미, 김다슬, 김다은,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민성, 김민욱, 김석희, 김선아, 김설아, 김소연, 김소현,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원오, 김유리, 김유숙, 김유엘, 김유정, 김윤혜, 김이슬, 김주연, 김지국, 김지민, 김지완,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한결, 김해나, 김현지, 김혜린, 김혜연, 김혜진, 김효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승연, 노영미, 노유민, 동진한의원, 류수민, 류원희, 류정빈, 류종현, 류한솔, 목소희, 문숙영, 문채훈, 미씨유럽, 민슬기, 민조현, 박계나, 박기원, 박미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종, 박아름, 박우영, 박인필,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박혜민, 박혜상, 박혜은, 박효인,

박흥주, 배용준, 배정원, 백상준,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범원, 서영민, 서해인, 섬김교회, 성민주, 손정은, 송민성, 송재희, 송지영, 송지영, 송지현, 송희원, 신경혜, 신보영, 신영미, 신용범, 심연희, 심진섭, 심현실, 안소연, 안효선,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양혜연, 엄지은, 염정신, 오경은, 오두환, 오민지, 오선호, 오연서,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원지혜, 유규민, 유선옥, 유소리, 유예리, 유용석, 유정안, 유진영, 유형신, 유혜영, 윤영선, 윤재희, 윤하영, 윤희진, 이경선, 이경아, 이다윤, 이도행, 이도희, 이명신, 이명희, 이미홍, 이산하, 이산하, 이상연, 이성아, 이수정, 이승준, 이승혜, 이승희, 이어진, 이업지, 이연재, 이욱영, 이은미, 이정숙,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주란, 이주섭, 이주현, 이준용, 이지영, 이지예, 이지혜, 이찬희, 이태복, 이해인, 이향심, 이향화, 이혜림, 이혜진, 이효은, 이희진, 임나영, 임명순, 임미영, 임소현, 임수현, 임유영,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임치선, 장다혜, 장세희, 장예승, 장주영,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혜영, 전혼진, 정고은, 정다연, 정민석, 정선희, 정순희, 정영수, 정은경, 정은혜, 정재윤, 정정희, 정정희,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정혜운, 정효영, 조민정, 조보라, 조서영,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중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보영, 진수희, 최강현, 최민영, 최수연, 최영주, 최유리, 최유림, 최윤미, 최정림, 최정임, 최희진, 추연정, 추지영, 표아림, 하상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영규, 한예림,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제량, 허지선, 홍난영, 홍상희, 홍윤기, 홍혜승, 황동하, 황상필, 황은순, NG FAITH SHI EN (271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30 연대하는 여성들, 강송율, 고보미, 고재영, 권다혜, 권혁주, 권훈, 기선호, 김경년, 김다영, 김도원, 김미순, 김민준, 김민지, 김서림, 김소영, 김언조, 김연경, 김연경, 김연진, 김이현, 김종현, 김진, 김찬균, 남세령, 독희의 공부방 구독자, 류채연, 문다빈, 문채훈, 민보현, 박선은, 박수완, 박양준, 박용순 박주희, 박하은, 변호현, 서기환, 서미정, 선윤우, 소민기, 아라키 히로히코, 양상블, 양성원, 양채원, 양혜원, 엄예진, 엘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우윤지, 원혜정, 위밋업스포츠, 윤수정, 이민주, 이상은, 이서희, 이슬기, 이승주, 이아름, 이윤희, 이주영, 이지성, 이지우, 이창아, 이현성, 이현주, 이형찬, 이혜림, 임동연, 임세혁, 장근용, 장예림, 장정수, 전다미, 전미소, 전예진, 정은혜, 정지연, 조보라, 조윤희, 조은혜, 조일래, 존타클럽, 주식회사 이로아, 차지우, 차현진, 최선아, 최수민, 최원준, 최정인, 최준우, 최지나, 트위터 아시아 퍼시픽(Twitter), 프론트킷, 하종성, 한소예, 허앤지(Angio Heo), 허은주, 허정수, 휘유 (이상 113명)

故 고재영 님을 추모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회원 고재영 님의 사후, 재영 님의 뜻에 따라 유가족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전 고재영 님이 상담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지지와 열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랑을 보내준 고재영 님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문의: 닻별, 산 / 02-338-2890-1 / f.member@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수수 / 02-338-3562 / yeolim@sisters.or.kr**

#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푸른나비** 님의 맛있는 떡
**만두** 님의 애정을 담은 미에로화이바 한 박스, 초코도넛 한 박스
**백목련** 님의 갓 구워 따끈한 그래놀라 2팩
**장명선** 님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천연 조미료 세트
**복서희** 님의 달콤한 크리스피 크림도넛 한박스
**비둘기** 님의 쫄깃한 비건젤리
**이주영** 님의 맛있는 파운드케익 두 박스와 마들렌 열 개
**신현주** 님의 직접 따서 더 맛있는 황금사과 5kg
**루나** 님의 애정 넘치는 스타벅스 고급 쿠키세트와 케이크
**고유** 님의 든든한 왕스콘 한보따리
**지원** 님의 사랑이 담긴 제주감귤초콜릿 한박스
**나랑** 님의 비혼여성농민이 직접 재배한 제주 귤 두박스
**Riva** 님의 바다를 건너온 연대의 비건말차쿠키 한박스
**권정** 님의 두손 가득 담은 각종 빵
**이명숙** 님의 새콤달콤 귤 두박스
**지리산** 님의 정성 가득 유과 1박스
**송지은** 님의 당분 충전 쿠키, 스콘, 까눌레 세트
**선민** 님의 센스만점 커피 그라인더와 수제 초콜릿, 그래놀라
**동은** 님의 경주 직송 찰보리빵과 경주샌드
**땅콩** 님의 각종 쿠키 한보따리
**서울시향 피해자**분의 연대와 감사의 큐브티백 한박스

{ 열림터 }

**심심잡화점 책방 최호선** 님의 책장을 풍요롭게 해줄 11권의 책
**엘케이코퍼레이션주식회사**의 패셔너블하고 멋진 긴소매티셔츠 50벌
**미씨유럽 옥혜숙** 님의 포근포근 극세사 무릎담요 10개

#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 카드게임

## “동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 합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상대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랜덤 플레이와 경험기반 플레이로
따로 또 같이 즐기는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한 번 해보실래요?

▲
게임이 궁금하다면?

##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오픈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묻지만
가해자에게 어떻게 동의를 확인했는지 묻지 않는 사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텔에 같이 갔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사회.

이제는 바꾸자!

▲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를 알고 싶다면?

한국성폭력상담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2890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